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과 루터 이해-롤랜드 베인톤의 『Here I Stand』을 중심으로

권태경

시작하는 말

I. 마틴 루터의 연구 동향과 이해

II. 마틴 루터의 개혁사상과 베인톤 교수
의 해석

III. 맺는 말

시작하는 말

16세기 종교개혁사 연구에 있어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루터에 대한 연구는 종교개혁자로서의 루터 인물에 대한 연구의 차원을 넘어, 루터 연구가 중세 교회와 종교개혁 시기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고찰하고 이해함에 있어, 롤랜드 베인톤 교수의 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틴 루터의 생애』(Here I

연구참여자 : 주연중, 석사

stand ; A life of Martin Luther)을 중심으로 루터의 개혁사상을 살피는 것이다. 이 저서는 국내외의 루터 연구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루터 연구서로 인정을 받는 저서이다.

본 연구를 위해 제 1장에서는 마틴 루터에 대한 평가와 학자들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제 2장에서는 베인톤 교수의 저서를 중심으로 루터의 생애와 개혁 사상을 살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이르러 루터의 개혁 사상을 평가하며, 아울러 루터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자 한다. 바라기는 이 글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적 상황과 루터의 개혁 사상, 그리고 루터의 역사이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마틴 루터의 연구 동향과 이해

지금까지 루터에 대한 평가와 연구 동향을 보면, 학자들의 종교적인 입장에 따라 루터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하고 있다. 즉 루터 진영의 학자들은 루터의 개혁을 정당화 하며 루터를 시대의 예언자로 표현하였으나, 카톨릭의 학자들은 루터 개혁의 순수성을 의심하면서 루터의 개혁의 정당성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루터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이들에 의하면 루터가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파괴했다고 비난하면서 그를 이단자로 보았다. 20세기에 와서 개신교안에서도 루터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찬반 양론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였다. 즉 트벨취, 라인홀드 니버, 칼 바르트, 본헤퍼, 몰트만에 의하면 루터의 신학은 사회 변혁보다 현상 유지를 도모하고,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여 사회적 문제에 침묵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달리 볼프강 포렐 카터 린드버그등은 루터의 신학은 오히려 사회 변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오늘날 루터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들, 즉 칼 홀, 알트하우스, 보른캄, 에벨링, 칼슨, 딜렌버거등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근거로 개신교 신학사를 서술하

였다.¹⁾

루터의 생애와 사상의 연구에 있어 학자들간의 논쟁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에릭슨처럼 루터를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베인톤은 반론하기를, 루터를 불안정한 조울병자나 정신적 혼란을 빚은 사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물론 역사 해석에 정신분석학적인 접근과 같이 다양한 측면의 연구 방법론이 루터의 이해에 필요하지만, 루터에 대한 에릭슨의 분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루터의 우울 증세는 종교적인 면에서 비롯된 것이지, 정신학적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베인톤은 루터의 전 생애를 통하여 볼 때 그가 (종교적인 문제의) 쟁송(Anfechtung, 영적시험/믿음의 시련)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종교적 동기 부여는 베인톤이 볼 때 루터의 표현과 행동을 해석하는 하나의 렌즈가 된다.²⁾ 루터의 개혁사상과 관련하여 또 다른 논쟁점은 농민전쟁에 대한 문제이다.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블로흐(Ernst Bloch)에 의하면 루터는 민중의 대의목적을 위한 위대한 배신자인 반면, 토마스 뮌처는 독일의 참 예언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르테

1)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삶과 신학이야기*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2), 14-16. 루터 연구가 근대에 이르러 활기를 띤 것은, 1917년 이후인데 이 시기가 루터 개혁의 4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학자로 하르낙, 트릴치, 갈 홀 등이 있다. 이 중에 홀은 루터파 정통파 학자로 루터를 신학사적 맥락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인간의 실존적 내면 세계와 연관시켜 루터의 죄악론과 의인론을 인식하려고 하였다. 이외에 유럽적 시야에서 종교개혁을 서술한 리터(G Ritter)와 보캄(H. bornkamm), 로제(B. Lohse) 등이 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사회사 연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뮐러(B. Moller)와 종교개혁과 도시문제를 연구한 라우(F. Lau)등도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루터 연구는 그의 사상이나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적이고 오버만(H. Obermann)과 같이 지성사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홍치모, *종교개혁의 세계* (서울:아가페, 2003), 306-332.

2) Michael Bauman and Martin Klauber, *기독교 역사가들*, 라운성 역 (서울:이레, 2002), 558.

(Dieter Forte)도, 돈이 종교개혁의 핵심에 있었고 루터의 일차적인 관심도 여기에 있었다고 루터를 비평하였다.³⁾

한국에서 루터 연구는 대체로 루터교 교수들의 연구에 의존하여온 것이 사실인데, 즉, 지원용 교수의 루터 연구서와 컨콜디아 출판사의 루터 저작물과 루터 신학대학교의 루터연구소에서 출판된 <루터연구> 잡지는 국내 루터 연구에 아주 유익한 자료들이다. 이외에, 루터 신학자가 아닌 연세대학교의 이양호 교수가 루터에 대한 책을 최근 출판하였는데, 여기에서 이양호 교수는 중세 교회가 행함을 강조한 대 반해 루터는 신앙을 강조하였다는 주장은 루터의 사상에 대해 교정해야 할 오해라고 하면서, 루터는 중세 교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세 교회는 계율과 권고를 구별하고, 교인들을 이원화하여 수도자들의 삶과 평신도의 삶을 구별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이 구별을 철폐하고 모든 신자들이 상상 수훈을 비롯한 복음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

한편, 박호용 교수는 뤼베니히의 루터 저서에 근거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적 관점에서 루터를 이해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그에 의하면, 특별히 루터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으로 1514년 말경의 “탑 체험”(Turmerlebnis)이라는 신앙체험이 있다. 이 신앙체험은 “내가 어떻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고뇌에 찬 물음에 대한 해답을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찾았다. 즉 “하나님의 의”가 “능동적”의가 아니라 “수동적 의”라는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었던 것이다. 즉 업적(공로)지향의 중

3) W. 뤼베니히 *마르틴 루터: 그 인간과 업적*, 박호영 역 (성지출판사, 2002), 30.

4) 이양호, *루터의 생애와 사상*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2), 7. 마네르마이(Tuomo Mannerman)와 같은 핀란드의 루터 연구자들은 루터의 중심교리가 신앙의인보다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로제(Bernhard Lohse)도 최근의 연구에서 후기의 루터에게서도 점진적 성결의 사상이 나타난다고 주장을 다시 펴고 있다. 이양호, *루터의 생애와 사상*, 6

교에서 은혜(민음)의 종교에로의 회복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인본주의)의 종교(도덕주의, 행복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신본주의)의 종교로의 회복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이 같은 루터의 신앙체험은 훗날 종교개혁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데, 결국 종교개혁은 그 시대정신과 맞아떨어지면서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멘탈리티의 개조라고 말할 수 있다.⁵⁾

II. 마틴 루터의 개혁사상과 베인톤 교수의 해석

본 장은 마틴 루터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 예일대학교 교회사 교수인 롤랜드 베인톤(Ronald Herbert Bainton, 1894~1984)의 대표적인 저술인 『내가 여기 있다: 마틴 루터의 생애』(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을 통해, 그의 개혁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⁶⁾ 베인톤은 당대의 종교 개혁 학자들 중 가장 뛰어난 인물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1894년 영국 일커스토스(Ilkesto)의 회중교회 목사 제임스 베인톤의 독자로 태어났다. 1902년 남아공화국의 보어 전쟁에 영국이 참여하는 것을 부친 제임스 베인톤이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 가족은 새로운 교구인 미국의 워싱턴 주 콜팍스(Colfax)로 이주하였다. 그는 월라 월라(Walla Walla)에 있는 워트만 대학으로 진학하여 1914년 고전 학사 학위를 받고, 1917년 예일 신학원에서 신학사와 1921년 켐족어와 헬라니즘의 헬라어를 연구하여 박사학위(Ph. D)를 받았다. 그는 예일 신학대학원 교수로 교회사와 신약 성경 과목을 가르쳤다. 이

5) 뢰베니히, *마르틴 루터, 그 인간과 그의 업적*, 588-89. 루터 연구 동향과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로 베른하르트 로제, *루터연구입문* (서울: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3); Martin Brecht, *Martin Luther* (Minneapolis:Fortress, 1985)을 보라.

6) Roland Bainton,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New York: Mentor Book, 1950).

후, 미드빌(Meadville) 신학교, 오벌린(Oberlin) 대학과 위트만 대학에서 D.D(신학 박사, Doctor of Divinity)를, 게티스버그(Gettysburg) 대학교에서 문학 박사와 말부르그(Marburg) 대학교에서 신학박사(Doctor of Theology)를 받았으며, 평생을 종교개혁 연구자로 학문 활동에 정열을 바친 사람이다.⁷⁾

그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베인톤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전쟁, 평화 그리고 종교적 관용이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의 자세』(Christian Attitude Toward War and Peace)에서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평화주의, 공명정대한 전쟁, 십자군이었다. 더욱이 그는 종교적 관용이라는 관점으로 종교 개혁의 주요한 특징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대부분의 베인톤의 종교 개혁 작품은 종교적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인물들을 연구하는 데 있었다. 베인톤은 다른 작품을 통해 역사 속에 학대 받았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며, 특별히 역사에 나타난 여성들의 역할에 흥미를 가지고 종교 개혁의 여성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다. 디킨스(A.G. Dickens)와 탄킨(John Tonkin)의 평가에 의하면, 베인톤은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들의 역할을 보다 자세히 밝혔던 미리암 크리스만(Miriam Chrisman)과 다른 작가들처럼 현대에 대중화된 사회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베인톤이 자신의 역사를 통해 강조한 부분은 루터와 소위 “좌파”라 불리면서 핍박 받았던 소수민에 관한 관심이었다.⁸⁾

베인톤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전술한 바와 같이 역사의 동인으로 종교를 강조하였으며, 종교가 인간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베인톤은 종교개혁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제적이고 정치적이며 정신분석적인 측면의 이해를 거부하고, 종교적인 면을 강

7) Michael Bauman and Martin Klauber, 549-550.

8) Michael Bauman and Martin Klauber, 551-552.

조하였다.⁹⁾ 베인톤의 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에서 보여지듯이, 이 작품은 루터의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강조하였다. “Here I Stand” 는 보름스(Worms)의회에서 루터가 로마 카톨릭교회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입장을 표명한 유명한 말인데, 루터는 여기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 고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베인톤은 로마 교회와의 루터의 논쟁은 근본적으로 신앙에 관한 것이었지, 도덕에 대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이점이 개혁가 루터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차이점인데, 주지하다시피 루터는 로마 교회와의 논쟁에서 신앙을 강조한 반면, 에라스무스는 윤리와 도덕에 관심을 가졌다. 베인톤에 의하면, 루터가 로마 카톨릭과 근본적으로 결별하게 된 문제도, 이 신앙의 문제와 관련된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 이와 같이 루터의 개혁 사상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물음과 이해에 대한 것이었다. 루터는 복음을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보다는,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베인톤은 종교적 확신이란 측면에서 루터를 해석하면서, 루터의 모든 행동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전적인 헌신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베인톤은 주장한다. 실제로 루터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종교적 문제인 자신의 구원과 확신에 대한 물음이었다. 루터의 종교적 동기 부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쟁송(anfechtung, 믿음의 시련)의 경험이었는데 베인톤에 의하면, 이 쟁송은 “사람의 정신을 쪼먹는 모든 의심, 혼란, 비통, 전율, 돌연한 공포, 자포자기, 처량함, 그리고 절망인데”, 이 절망이 전적으로 루터의 정신에 침투했을 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갈구하는 루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요소라고 베인톤은 주장하였다. 루터의 이 ‘쟁송’의 경험은 루터의 생애에 전

9) Michael Bauman and Martin Klauber, 553.

10) Bainton, *Here I Stand*, 196.

환점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절망감에 처해있던 루터가 이신칭의를 깨닫고 나서, 루터에게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경외가 되었고, 이 시련으로 진정한 의로움을 알게 되었다. 루터는 [탁상담론](Table Talk)에서 고백하기를, “만일 조금만 더 살 수 없을 뿐 더러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이 무엇임을 전혀 알 수 없다. 쟁송 없이는 영적 삶이 무엇임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고 하였다. 루터는 쟁송을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으로 볼 뿐 아니라, 자신을 참된 의의 길로 인도하는 힘으로 보았다.¹¹⁾

쟁송과 같은 루터의 갈등은 구원의 빈약한 확신과 불가분의 관계였다. 구원의 빈약한 확신은 루터가 초기 경험한 중요한 위기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루터는 자신의 신앙을 인격화시키고 내면화시켰을 뿐더러 계속하여 하나님께 수용되기 위하여 고투하였다. 루터의 순례에 결정적인 3가지 사건은 모두 쟁송을 직면하는 순간이었다: (1) 수도원을 찾으려는 결심 (2) 처음 미사를 집전할 때 (3) “탑의 경험”(tower experience) 등으로 인하여, 그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매 사건마다 루터는 쟁송과 씨름하게 된다.¹²⁾

루터의 생애에서 중요한 수도원에 입원하려는 루터의 결심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위기였는데, 에르푸르트(Erfurt) 법대에서 첫 학기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도중 루터는 번개와 천둥으로 인하여 갑자기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섭게 몰아치는 번개를 두려워하면서 그는 광부들의 성자(그의 아버지가 광부였기에)에게 부르짖기를, “성 앤이여, 내가 수도승이 되겠나이다.” 부르짖음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것은 루터가 자신의 서약을 지켰다는 것이다. 베인톤이 주장하기를 루터는 폭풍가운데 치는 번개를 전능하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술하였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결정

11) Michael Bauman and Martin Klauber, 554-555.

12) Michael Bauman and Martin Klauber, 555-556.

은 루터가 폭풍에 둘러 싸여 당황하며 내뱉은 것이 아니라, 루터의 생애 중 심각한 사건의 절정으로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루터의 마음을 이끌었던 것이다. 후에 루터가 수도승을 포기했기 때문에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그의 결정에 대하여 많은 비평이 있다. 어떤 비평에 따르면 루터의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소명보다는 내적 갈등의 결과임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평은 빈약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인톤은 이를 무시하였다.¹³⁾

쟁송을 경험한 두 번째 위기는 루터가 처음 집전한 미사였다. 루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 개인에게는 매우 힘든 순간이었다. 하나님 존전에 무가치한 존재임을 극적으로 자각하고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 절망적임을 알고 있었다. 루터는 죄성으로 가득찬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여기에서 루터는 쟁송의 극적인 비통을 가지게 된 것이다. 루터가 쟁송을 경험한 것은 그 예식의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의 부친이 그곳에 참여하였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수도원으로 입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던 아버지를 루터가 두려워한 것은 사실이었다. 자신과 부친에게 루터의 첫 미사는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기회였고, 성례가 마친 후 그는 자신을 인정하는 부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질문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부친이 말하기를: “너는 학문을 배웠는데 성경에 너의 부친과 모친을 존경하라고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는 이렇게 노년에 있는 나와 죽은 너의 모친을 떠날 수 있느냐?”¹⁴⁾

루터의 개혁 초기 경력에서 일어난 마지막 위기는 이신칭의 교리의 발견으로 1516년과 1517년간 시편을 강의하였던 어떤 시기에 일어났다. 이러한 발견이 초기 위기와 다른 것은 현혹시키는 폭풍 속에서 일

13) Michael Bauman and Martin Klauber, 556.

14) Michael Bauman and Martin Klauber, 557.

어난 것이 아니고 어거스티니안 수도원의 연구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루터는 시편을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 예언하는 책으로 보았다. 베인톤의 설명에 의하면 시편 22편에 대한 루터의 사용은 특별히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 상에서 이 부분이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고 쟁송의 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자신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것을 그리스도도 이미 겪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루터는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게 되었고 주님의 고난의 아픔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십자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단번에 행하신 속죄 사역으로, 구속을 가능케 하셨던 것이다. 베인톤이 주장하기를 루터는 에릭슨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신칭의를 화강실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하여 발견했다. 원어 성경의 사용을 강조하는 인문주의자들처럼 성경을 깊게 주해하는 가운데 이런 신학을 발견한 것이다.¹⁵⁾

베인톤의 자신의 저서 『Here I Stand』에서 루터의 생애를 고찰함에 있어 1505년 7월부터 시작하고 있다.¹⁶⁾ 이는 루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결정적인 시기인데, 여기에서 베인톤은 루터 신앙의 깊은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수도원을 입문하는 루터의 결심은 개인적으로 위기였다. 베인톤이 주장하기를 루터는 폭풍가운데 치는 번개를, 전능하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술하였다고 했다. 또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결정은 루터가 폭풍에 둘러싸여 당황하며 내뱉는 것이 아니라 루터의 생애 중 심각한 절정으로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그의 마음을 이끌었던 것이다.¹⁷⁾

15) Michael Bauman and Martin Klauber, 557-558.

16) 루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개관은 줄고, 권태경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심, 2001)을 참고하라.

루터는 에르푸르트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당시 비텐베르그도시 인구는 약 2000-2500명 정도였다. 1512년에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1513-1516년에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다. 루터에게 이러한 성경 연구는 그의 생애에서 새로운 전환인 다마스쿠스로 가는 여정(the Damascus road)이 되었다. 이후 루터는 자신의 영적 고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하고, 당시 카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개혁적인 사상을 피력하였다. 1516년 3번의 설교에서 루터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에 대해 비판하였다. 루터의 개혁 사상은 95개조의 논제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루터는 로마 교황이 연옥의 권세를 갖고 죄와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하였는데, 왜냐하면 사죄는 고해 성례시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었다.¹⁸⁾ 무엇보다 루터에게 이신칭의와 십자가 신학은 중요한 문제였다. 루터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므로 하나님은 심술궂거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체험과 바울 연구를 통해 이신득의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결국 루터는 고난받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갈보리에 가려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발견한 복음이다.¹⁹⁾

루터의 개혁 사상은 카톨릭 교회의 교황권과 관련이 있다. 루터는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면서, 교황과 교회 공회에도 오류가 있음을 선언했다. 결국 루터는 카톨릭의 도미니크 수도회로부터 이단자로 불리고, 교황은 루터를 사악한 아들이라 하였다.²⁰⁾ 카톨릭에서는

17) Michael Bauman and Martin Klauber, 556. cf. Bainton, *Here I Stand*, 22-27.

18) Bainton, *Here I Stand*, 39-64.

19) Bainton, *Here I Stand*, 48-50.

20) Bainton, *Here I Stand*, 79.

루터는 교회의 전통을 파괴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라고 하지만, 루터는 교회 일치를 파괴하는 것에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라이프찌히 논쟁에서 보여진 것처럼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카톨릭 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랐다.²¹⁾

루터의 개혁 사상을 이해하는데, 대표적인 3개의 중요한 작품은 『바빌론의 포로생활』, 『독일 귀족에게 고함』,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 이중 『바빌론의 포로생활』은 카톨릭 교회의 성례에 대한 루터의 비판인데, 루터는 카톨릭의 7개의 성례 중 성만찬과 세례만을 인정하였다. 루터의 카톨릭의 교리에 대한 비판 중 가장 주목할 만 한 것은 미사에 대한 루터의 입장이다. 한편, 루터는 카톨릭의 화체설과 성찬 집례의 권한이 사제에게 부여되는 것을 공격하였다. 루터는 카톨릭의 미사가 마술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것이 의식의 집례가 아닌 임재의 체험(the experience of a presence)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루터의 미사에 대한 비판을 통해 우리는 루터의 개인주의에 대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르네상스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²²⁾

루터의 또 다른 개혁의지를 표현한 글은 『독일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작품이다. 루터는 로마 교회를 비판하면서, 독일 귀족들에게 개혁을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귀족(nobility)는 넓은 의미로 황제를 포함한 독일의 지배 계급을 말한다. 루터는 교회와 국가가 상호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협력하고 견제 할 책임이 있음을 말했다.²³⁾ 1520년대 루터의 작품 중 또 다른 논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

21) 카톨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서를 참고하라. 제임스 기본스, *교부들의 신앙*, 장면 역 (서울:카톨릭출판부), 1993, 502-524.

22) Bainton, *Here I Stand*, 105-109.

23) Bainton, *Here I Stand*, 117.

이 글은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시작하는데, 루터는 교황을 적 그리스도로 보지만, 이는 교황 그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카톨릭교회)제도에 대한 투쟁을 말하고 있다. 루터는 이 논문을 통해 그리스도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해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루터는 교황의 수위권(the primacy of the pope)을 부인하면서, 만인제사장을 주장하였다.²⁴⁾ 다른 한편,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결혼문제와 예식에 대한 자신의 개혁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에 의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인간의 법으로 이 결혼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미사와 관련하여, 루터는 고해성사 없이 성례에 참여하여 포도주 잔을 마실 수 있으며, 성례시 모국어를 사용하며 성가를 부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루터에게 카톨릭의 미사는 하나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고 하였다.²⁵⁾

루터는 자신의 종교개혁 사상을 피력함에 있어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베인톤에 의하면, 루터에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고, 종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외 다른 것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루터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으며, 하나님과의 인간의 화해와 순종이 루터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루터에게 종교는 가장 중요한 면이었고, 성경 설교 그리고 성례를 통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였다.²⁶⁾

베인톤은 루터의 정치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 바울과 어거스틴의 영향을 언급하였다. 루터는 로마서 13장에 근거하여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상기하며 세속 권력에 복종을 요구하였다. 루터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거부하고 신정정치를 반대하였다. 또한 루터는

24) Bainton, *Here I Stand*, 126-127.

25) Bainton, *Here I Stand*, 152-56.

26) Michael Bauman and Martin Klauber, 554. Bainton, *Here I Stand*, 167.

반란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반란과 폭동으로 야기되는 악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루터는 농민 반란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시민들의 무장 봉기와 같은 것을 질서있는 혁명으로 보지 않았다.²⁷⁾ 이 농민전쟁에 대한 루터에 대한 입장을 두고, 약간의 논쟁이 있다. 1525년 루터는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약탈자 농민들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농민들의 행동을 정죄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칼 홀과 같은 역사가는 루터가 토마스 뮌처와 같은 과격주의자에 대한 사회적 무질서를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배인톤은 폭력과 농민에 대한 입장을 달리 해석하였다. 즉 배인톤은 농민을 과도하게 비평하는 루터의 표현인, “쳐라, 죽여라, 그리고 찢어라”는 말만을 기억하고 비판자들이 다른 내용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루터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 개혁을 주장한 보수적인 개혁자이기에 농민 전쟁을 지지하기보다는, 질서를 유지하려는 루터의 의도를 이해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루터는 폭력을 싫어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폭동을 근절하려 했다고 배인톤은 주장한다.²⁸⁾ 배인톤은 재세례파와 농민 문제 이외에, 교육에 대한 루터의 관심을 소개하면서 루터를 독일과 16세기 역사에서 교회와 국가 그리고 사회의 새로운 면을 조장한 인물로 평가하였다. 특히 성경 번역, 요리문답작성, 예전 개혁, 찬송가 창작 등에 기여한 루터의 개혁과 공헌은 16세기 종교개혁가들과 비교해 볼 때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배인톤은 루터가 미친 3가지 영역 즉 독일, 교회, 종교에 미친 루터의 공헌을 논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 있다.²⁹⁾

27) Bainton, *Here I Stand*, 184-188, 213.

28) Michael Bauman and Martin Klauber, 558-559.

29) Bainton, *Here I Stand*. 463.

Ⅲ. 맺는말

지금까지 베인톤의 저서를 중심으로 루터의 개혁 사상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루터의 사상에 관심을 갖는 것 중의 하나는, 루터가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대에 가진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루터의 역사인식과 루터의 역사 이해의 문제이다.

종교개혁기의 역사이해에 주목할 만 것은,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이해와 관점의 변화이다. 종교개혁시기의 새로운 역사 변화는 중세의 정적 사관으로부터 동적 사관으로 변화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하에 종교개혁자로서 루터는 고대의 순환적인 역사인식과 중세의 사변적이고 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역사의 새로운 동인을 강조하는 사관을 피력하였다.³⁰⁾ 루터의 역사이해에 전제는 신앙과 믿음의 눈이다. 루터에게 역사는 말 위에서 창 시함을 하는 하나님의 무대(theater)였다. 루터는 역사적 사건이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의미(meaning)를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비(mystery)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루터는 역사적 사건들을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분명해진다고 하였다.³¹⁾ 루터는 하나님의 행위가 감추어진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숨어계시는 분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숨겨진 의미는 루터의 역사관에서 중요한데, 루터는 하나님을 숨겨진(hidden) 하나님과 계시된(revealed) 하나님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은 역사에서 숨겨져 있지만, 피조물을 통해 계시됨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이시며,

30) 루터의 역사이해에 대해서는 줄고, 권태경 *기독교세계관과 역사*(그리심, 2001)와 베른하르트 로제의 *루터연구입문*을 참고하라.

31) E. Harbison, *Christianity and History*, (Princeton Univ. Press, 1964), 276-77.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²⁾

루터는 역사에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았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 루터의 역사이해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점이 이전 스콜라주의자들과 인문주의자들, 그리고 급진주의자들의 역사이해와 크게 다른 점이다. 그리고 루터는 역사를 창조부터 심판에 이르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의 드라마로 보았다. 즉, 이는 역사의 종말론적 이해를 말하는데,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하는 학자는 독일 예를랑겐 대학 교수인 알트하우스(Paul Althaus)이다. 그에 의하면, “루터의 신학은 세상의 종말을 기대하는 면에서 볼 때, 철저히 종말론적이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측면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게 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³⁴⁾ 이 루터의 종말론은 역사의 의미와 목적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처럼 루터는 종교개혁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카톨릭에 대한 자신의 개혁의 정당성을 당시 시대상황과 관련시켜 이해하였다. 루터는 결국 역사의 종말이 도래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 될 것이라고 하였다.³⁵⁾

루터가 자신의 개혁에서 보여준 것은 로마 교회의 남용과 부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다. 루터는 로마 교회의 삶과 로마 교회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였다. 루터가 교회를 파괴한자로 카톨릭에서 비판하지만, 루터는 교황의 혁신을 주장한 것이지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지는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루터는 혁명가 아닌 개혁가였다.

32) 최병규, *루터의 설교학* (서울:양문출판사, 1990), 125-26, 145.

33) Bernhard Lohse, *Martin Luther*, (Fortress Press, 1986), 195-96.

34)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tr., Robert Schultz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3), 404.

35)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418-20. 그리스도의 부활은 로마서 8:21에서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인의 육체적 부활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완전한 구속과 창조를 말한다.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424.

전체적으로 보면 베인톤의 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루터의 자선전 중 가장 뛰어난 저서이며, 그의 종교적인 발전 과정을 잘 분석한 책이다. 베인톤이 재세례파와 같은 문제에 일면 저자의 편견이 보이지만, 자신의 종교적인 성향인 웨이커와 회중파 목사로서의 입장을 감안하며 이해할 만하다. 베인톤의 역사이해와 서술에서 주목할 만 것 중의 하나는, 종교적 관용과 평화주의, 종교가 인간 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제인데, 이는 근대 서양 사회의 발전과 이해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베인톤의 저서인 루터와 16세기 종교개혁의 저서들은, 서양 근대 문화와 역사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저서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베인톤의 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루터의 인물과 생애를 소개하는 자선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16세기 역사적 배경에서 루터의 생애와 개혁 사상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 베인톤은 루터의 개혁 사상을 다룸에 있어, 비교적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를 사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역사가 베인톤의 이러한 서술과 노력은 종교개혁이 단순한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서양 근대사의 전환기적인 중요한 역사적 사건임을 말하고 있다. 베인톤의 저서를 통해, 종교개혁의 성격과 본질, 개혁의 필연성과 당위성 이 모든 문제가 잘 나타나고 있기에, 이 책은 루터와 16세기 종교개혁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저서로 여겨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루터의 개혁 사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루터의 영적 갈등, 고민, 몸부림인데, 이것을 저자 베인톤은 쟁송(Anfechtung)이라는 개념으로 루터 개혁의 중심개념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루터의 개혁 사상은 한 독일의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크리스천의 영적 고민이, 그 시대의 독일과 유럽에 어떻게 영향력을 준 역사적 사건이 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살펴본 개혁자로서의 루터와 그의 종교개혁은 예배와 신학과 삶의 개혁을 주장한 16세기 종교개혁의 시

기에, 종교개혁을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중세와 근대사의 전환기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하도록 한 점을 우리는 재차 주목할 필요가 있다.